

“한파 공포 ‘실외 메달플라자’...감동까지 얼어버릴까 걱정”



평창 특특 | 북한 '은방울 패딩'과 보안검색 '기미상궁'

스포츠통아 2018평창동계올림픽 현장 취재팀이 12일 오후 6시 회의를 위해 한 '자리'가 아닌, 한 '창'에 모였습니다. 평창군 알펜시아와 휘닉스 스노 경기장,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넓은 지역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대회 특성상 함께 모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취재하는 이경호, 강산, 장은상, 고훈준 현장 기자 4명의 회의 내용을 편집 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이경호 기자
고 기자, 지금 강릉도 굉장히 추운데 스노보드 클로이 김 취재 잘 했나요?

고봉준 기자
네, 근드네 손이 어긋아서 자나판을 못 치게 쓰네요

이경호 기자
알파인 스키는 이틀째 연기 됐죠 실내에 있는 강 기자, 쇼트트랙은요?

강산 기자
분위기 좋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남자들과 훈련해도 안 밀리더군요

강산 기자
참, 오늘은 커피 들고 경기장 들어가는데 검색 요원이 마셔보라고...기미상궁인 줄

이경호 기자
'셀프 기미상궁'이네요 북한 응원단도 화제죠?

강산 기자
북한 응원단 고위 관계자가 입은 패딩 브랜드가 '은방울'이더군요

이경호 기자
북한에선 최고 인기 브랜드겠죠? 그나저나 시상식 열리는 메달플라자는 너무 춥더군요

장은상 기자
추워서 국내선수 아니면 누가 찾을까 싶더라고요

고봉준 기자
메달플라자라는 시끄러내 써쓰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정식 메달 세리머니는 경기 장소가 아닌 메달플라자에서 다음날 열린다. 그러나 메달플라자가 중무장이 불가피한 추운 실외에 있어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경호]님이 [강산][장은상][고봉준]님을 초대했습니다.

[이경호]이하 이)=“고 기자, 스노보드 클로이 김 취재는 잘 했나요? 강릉도 굉장히 추운데, 평창 휘닉스 스노 경기장은 추위를 상상하기도 싫어지네요.”

[고봉준]이하 고)=“지금 손이 얼어서 자판도 잘 못 치겠어요. 클로이 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방한화를 안 신고 왔는데 후회합니다. 1시간 동안 밖에서 있었는데 발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설상 종목 관람 계획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꼭 안전모장, 특히 방한화와 털모자, 필수입니다.”

[이]=“알파인 스키 경기는 강풍으로 이틀 연속 연기가 됐습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바람이 더 큰 걱정인데요, 앞으로 경기 일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고]=“다행히 알파인 스키는 예비일이 비교적 많이 잡혀 있습니다. 경기 일정 소화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기력은 문제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공중에서 떠 있을 때 강풍이 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두 컨디션 관리가 어렵다고 하네요.”

[이]=“쇼트트랙 대표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강산]이하 강)=“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 넘어진 황대현이 심리적인 부

분이 걱정이었었는데 오늘 훈련에서 웃음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민정 선수는 남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컨디션을 끌어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세우 코치는 최민정이 체격 좋은 남자선수들과 레이스를 하는데도 멀리서 보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스피드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장 입장 때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검색 요원이 ‘눈 앞에서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혹시 커피가 아니라 독극물일 수도 있어서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부분입니다. 보안검색도 처음에는 혼란이 컸는데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기미상궁이군요^^” [이]=“셀프 기미상궁이네요^^ 보안 검색대 군인들, 자원봉사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장은상]이하 장)=“순수한 ‘자원봉사’의 정신이 많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추운데 미소를 잃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도 이러한 이유로 개회식 도중 직접 자원봉사자들을 언급하며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북한 응원단도 화제더군요.” [강]=“북한 응원단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노신사가 입은 패딩 상표가 ‘은방울’이더군요. 한글로 ‘은방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은방울’이 북한에서는 최고 인기 브랜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식 시상식이 열리는 메달플라자는 가장 추운 평창 올림픽 플라자

에 그것도 야외 시설입니다.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감동적이었지만 장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국내 선수가 없을 경우 관중들이 얼마나 찾을까도 걱정거리입니다.”

[이]=“동계올림픽은 추위 등 여러 이유로 메달 세리머니를 다음 날 따로 특정 장소에서 하는 관례가 있는데, 실외 시설이면 이 의미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네요.”

[고]=“메달플라자 만큼은 실내무대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또 하나 아쉬운 건, 경기장에서 직접 응원한 관중들을 위해 메달 수여는 안 해도 국가 연주는 있었으면 해요. 직접 현장에서 응원한 선수가 금메달 따고 시상대에 올라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주는 감동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강]=“맞아요. 그 감동은 현장에서 느껴야 하는데...”

[장]=“빙상종목 선수들의 경우 강릉에서 평창으로 이동해 메달을 받은 뒤, 다시 강릉으로 이동해야 하니 분명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개막식은 하늘이 도와 추위가 덜했는데 앞으로 이어질 메달 시상식도 부디 강풍과 큰 추위 없이 열려 관중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고, 또 만나요.”

평창·강릉 | 올림픽 특별취재팀

“1년 수입 날아갔다” 올림픽으로 무너진 생계 어찌나

평창 르포

인근 스키 대여업체 70곳 중 50곳 문 닫아 절박한 마음에 호소문에 현수막 내걸기도 보상 전무...조직위 ‘법적 근거 없다’ 방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한적하다 못해 적막했던 산골길에 갑자기 변화가 시작된다. 음식점과 펜션, 스키와 보드 장비 대여업체, 슈퍼마켓 등이 밀집한 이곳은 모두 200만평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키 리조트 휘닉스파크에 기대어 먹고 산다. 휘닉스파크에는 스키장 뿐 아니라 워터파크와 스파, 그리고 골프장이 있다. 음식점, 펜션 등이 여름에도 제법 장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이다.

반면 스키와 보드 장비 대여업체는 겨울 한철 번 돈으로 일년을 산다. 22개의 스키 슬로프가 있는 휘닉스파크는 국내 최고의 설질로 이름

이 높다. 일본의 모리 건설이 설계한 슬로프는 태기산의 능선을 잘 살려내 스키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70개 대여 업체가 겨울이면 늦은 밤까지 문을 열고 영업을 했다.

12일 찾은 휘닉스파크 정문 앞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휘닉스파크는 휘닉스 스노 경기장이라는 이름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과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음식점에는 밤늦도록 각 나라에서 모인 관광객이 넘친다.

그러나 스키대여업체는 모두 문을 닫았다. 70개였던 렌탈샵은 20여개로 줄어들었다. 한 업체 직원은 “평소 같으면 보드에 열심히 확신을 할 때인데... 가게도 나도 파산직전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휘닉스파크가 스노보드 등의 종목을 유지하면서 스키장과 리조트 전체는 1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일반 영업을 완전히 중지했다. 1월 22일 이전에도 22개 슬로프 중 약 30%만 운영됐고 경기장 공사가 계속되면서 대여업체 중 절

반 이상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

대여업체 웰드스키 임종천 사장은 “우리는 겨울 스키 시즌에 한 해 수입을 벌어서 산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20% 이하로 줄어들었다. 절박한 상황이다. 더 답답한 것은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휘닉스파크는 올림픽을 위한 영업중지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받았다. 올림픽 관광객들이 찾는 인근 펜션과 식당은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았다. 역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용평리조트는 알파인 스키 대회전 한 종목만 치러 스키장과 객실 모두 정상영업중이다. 알펜시아와 정선 경기장은 올림픽을 위해 건설된 곳이다. 성대한 국가적인 잔치 속 봉평면 장비 대여업체들만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들의 역할이 더 무너지는 것은 “올림픽 덕분에 보상이도 받고 일도 안 해서 좋지 않느냐”는 잘못된 소문이다.

임종천 사장은 “보상은 1원도 없었다. 우리도 올림픽 개최에 박수치며 기뻐했다. 지역출신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다. 열심히 응원하고 싶다. 하지만 1년 수입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는 2017년 7월 공청회를 열고 스키, 스노보드 장비 대여업체들에게 1월 22일부터 휘닉스파크의 전 슬로프 영업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대여업체들은 조직위, 강원도청 그리고 청와대까지 찾아가 막막한 생계를 호소했다. 개막 이후에는 휘닉스파크 앞에서 호소문을 돌리고 있다. 문 닫은 가게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걸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최근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성백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은 “휘닉스파크 인근 렌탈 업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경기가 열리는 휘닉스파크 인근 스키, 보드 장비 대여업체는 대회 중 리조트의 영업 중지에 따라 한 철 청사를 망쳤다.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함에도 절박한 마음이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달려 있다.

체들의 문제는 IOC의 공식의제 중 하나다.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보상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직위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면 배임이 된다”며 “대여업체들은 휘닉스파크 외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던 그 적용 범위, 손실액 계산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조직위차원에서는 법률적인 보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평창 | 이경호·장은상 기자 rush@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